

평화교육으로서의 홀리스틱 교육

명 지 원

삼육대학교

〈요 약〉

21세기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으로 인정되고 있는 홀리스틱 교육은 ‘관계성’을 특징으로 모더니즘의 파편화와 요소주의적인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병든 문명과 병든 교육의 근원은 같다”는 생태학적 각성을 통한 인간 본질 회복의 접근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화하는 정보화사회의 세계에서 소통과 배려와 상생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관계지움의 교육’이 요청되는 데 그것이 홀리스틱 교육의 접근이다. 이 홀리스틱(holistic)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홀로스(holos)를 어원으로 하며, 이의 파생어로 전체 · 완전체 · 통일체(whole), 건강(health), 치유(healing), 신성한(holy) 등이 있다. 즉 건강하고 균형지고 조화로운 치유공동체(healing society)를 지향하는 의미로서 인간의 존재양식과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의미이다. 이 홀리스틱 교육과 그 의미나 지향에 있어서 유사한 개념이 평화교육이다. 우리시대의 평화는 당위요 생존의 절대조건이다. 일반적으로 평화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논문은 홀리스틱 교육을 통해 그러한 소극적 평화론이 아닌 적극적 평화론을 지지한다. 먼저 홀리스틱 교육의 특징을 소개하고, 홀리스틱 교육의 내용 중 평화교육의 요소를 추출하며, 평화교육의 출발점은 이데올로기 대결, 군비축소와 같은 외적 평화의 도모 이전에 학생의 내적 자아, 내적 교사의 발현에 초점을 맞추어 교실과 학교환경에서의 홀리스틱 평화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유네스코현장의 천명처럼 결국 평화교육은 그동안 소홀히 해온 인간 내부의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의 비평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평화교육은 가장 좋은 종교교육이다.

핵심 주제어 : 홀리스틱 교육, 평화교육, 전일성, 대안적 접근, 의미

I. 들어가는 말

한 인간의 방향성은 근본적으로 그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과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관계의 연속 속에 이루어지며, 인간 내적 그리고 외적 관계의 질은 그의 인격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차원적이고 전인적 존재이다. 관계는 삶의 본질과 의미 규정문제와 직결된다. 관계는 소통을 전제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배려와 상생을 위한 참여를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관계 단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곳곳에서 관계의 단절을 목도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구촌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으로서의 인간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어느 시대보다도 빈번한 접촉과 만남의 가능성이 높은 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관계의 회복과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간의 개인 내적, 외적 관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실천케 하는 관계회복의 활동’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역사는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으며, 20세기는 인간역사의 축소판이요, ‘폭력의 세기’요 ‘광기의 세기’였다. 나와 나의 관계, 나와 피아의 관계가 깨진 시대였다. 21세기 벽두에도 여전히 지구촌은 전쟁과 파괴의 비평화적 현상을 겪고 있으며, 평화를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요, 적을 응징하는 것이 평화라는 소극적 평화론에 입각한 무관심과 무감각은 악순환을 반복한다. 사회와 인류의 평화에 미치는 복잡한 요인에 대한 이러한 무감각과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만남과 접촉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고, 자신과 타인 및 우주를 이해하고, 편견을 불식하고 갈등을 극복하여 상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교육이 평화교육(peace education)이다.

평화교육이 평화라는 특수성과 교육이라는 일반성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때, 지금까지의 평화교육은 지나치게 평화라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극적 평화관과 같은 단순도식과 개인의 의식개조 차원만 강조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교육이라는 일반성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화교육이 요청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21세기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으로 인정되고 있는 홀리스틱 교육(holistic education)은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 단절의 시대에 관계의 의미를 강조하고, 진정한(authentic)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객관적 실증주의에 기초한 과학주의적 모더니즘 교육의 문제점은 이러한 관계와 의미의 교육에 소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과 삶에 대한 표피적인 이해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세계를 중시하고, 자신의 존재의 본질과 삶의 본질 문제를 도외시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로 ‘저기 밖에(out there)’ 있는 비본질적 목적을 지향하게 된다.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본질을 찾는 노력을 외면한 교육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홀리스틱 교육은 개개인의 지성, 정서, 사회, 신체, 예술, 창의, 영혼의 잠재성 등 인간의 전인적 성장에 관심이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개인·집단적 책임과 참여를 강조한다. 홀리스틱 교육은 이해와 의미에 대한 탐구이다. 홀리스틱 교육의 목적은 모종의 새로운 맥락 속에서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마다 학습할 수 있는 건전하고 전인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학생들에게 지구의 홀리스틱(전일적) 관점, 지구상의 삶, 세계 공동체의 등장을 소개함으로써, 홀리스틱 전략은 학생들로 하여금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형성하는 다양한 맥락을 인지하고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즉 홀리스틱 교육은 인간의 원자적 이해가 아닌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총체성(wholeness)을 강조하며, “부분에서도 전체를 느낄 수 있다”는 통합성의 관점을 통해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며 인간 내부의 자기와의 관계와 외부와의 관계의 조화와 연합을 강조하는 교육사상이다.

이러한 시각과 접근을 통하여 이 논문은 21세기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인 홀리스틱 교육의 평화교육적 요소를 분석하고, 홀리스틱 교육의 ‘연계성(connection)’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내적 평화와 외적 세계와의 평화로운 연계를 추구하는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II. 평화교육의 필요성 및 양상

평화는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다. 21세기 벽두에 인류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를 폭력으로 유지하려는 지난 세기와 같은 접근을 목도하고 있다.

유엔은 1996년을 ‘국제평화의 해’로 선포하였고, 그 이후 평화에 대한 논의와 그 실천을 위한 평화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형성되어온 안보논리와 이데올로기 경쟁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평화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화교육이란 갈등과 폭력 및 편견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고 인권을 보장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고자 하는 교육이다.

평화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매우 협소하고 소극적인 입장이다. 군사균형의 이데올로기와 강대국들의 군비경쟁 비용은 확대되는데, 이 비용은 지구촌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다. 걸프전과 최근의 전쟁은 하이테크 첨단무기의 각축장이 되었고, 평화를 위해 적을 공격하는 장면을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평화에 무감각과 무관심이 평화교육을 방해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과 무감각은 비평화 상태의 당연시와 문제의식을 둔감하게 만든다. 이에 평화교육을 추상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닌, 인간 내적 평화와 외적 관련 요소들과의 연계와

의식이 요청된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 삶의 모든 현실을 대상으로 하며, 평화교육 역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생명존중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의 영역은 오늘날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생태학적 연계와 생명존중 사상과 연관된 환경운동,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삶의 질의 불평등 심화, 국제이해와 인권존중 등과 같은 평화 관련 주제의 운동과 협력하고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생태학적으로 연계되어 전개되고 있다.

평화운동의 흐름으로는 크게 소극적 평화론 대 적극적 평화론,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론과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저항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평화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적극적 평화개념으로 정의된다. 소극적 평화관의 예는 전통적이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화관인 파스(pax)적 평화관이다. ‘파스 로마나’, ‘파스 아메리카나’로 대표되는 파스적 평화관은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평정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기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처럼 갈등, 전쟁 혹은 폭력의 부재를 뜻하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고 한다. 존 롤스는 『만민법』에서 이러한 평화관에 기초해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논리를 사용한다. ‘소극적 평화관’은 평화를 해석하는 관점이지 가치관이나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 철학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적극적 평화관의 예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에 의한 산업문명비판과 독일인들의 이상주의적 성향과 논리체계를 통해 이론과 실천적인 면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온 독일의 ‘비판적 평화관’이다. 비판적 평화관은 전통적인 평화관에 입각한 평화교육이 첫째, 개인의 의식개조 차원만 강조하고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과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구조적 폭력 등과 같은 구조 점점을 소홀히 했고, 둘째, 그 주제를 전쟁, 갈등, 폭력 등으로 분명히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¹⁾. 또한 현대 평화학의 아버지 요한 갈통(J. Galtung)은 ‘구조적 폭력(strukturelle Gewalt)’, 쟁하스(D. Senghaas)는 ‘조직화된 평화부재(organisierte Friedlosigkeit)’ 등의 개념으로 비평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갈통은 그 사회의 지식인층이 그들이 생산하는 이론과 담론으로 잘못된 사회구조와 체제의 정당성 혹은 ‘불가피성’을 입증·강화해 주는 것을 ‘문화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했다²⁾.

유네스코의 평화교육 개념은 전쟁의 원인을 인종적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사상들을 교환함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평화교육 이념이다. 또한 “전쟁은 인간의 머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에 평화를 위한 배려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 서문의 표현처럼 개인간, 민족간 갈등과 편견과 불신을 교육

1) Wolfgang Brenzika, Brenzika, W. Erziehüg und Kùlturrevolution-Die Padagögik der Neuen Linken, (München: Ernst Reinhardt Verlag, 1974), p.118.

2) 평화전문인터넷 신문 ‘평화만들기’, 224호.

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평화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강조한다.

이 입장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³⁾. 유네스코의 평화에 대한 입장은 비평화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데, 이는 비평화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 평화관은 소극적 평화관과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을 비판한다. 유네스코의 평화 교육론은 개인의 양심과 정서에만 호소하는 이상적이고 감상적인 입장이라서, 적극적 평화관의 입장인 ‘비판적 평화관’에 의해 비판받아왔다. 유네스코는 이후 이러한 교육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국제이해교육을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노력해왔다. 유네스코의 평화교육관은 인간의 행동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인간의 폭력성과 그것이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원인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인간의 마음과 사회구조를 고치는 노력을 동시에 접근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교육에 대한 접근방향으로서 ‘비판적 사회 읽기’와 ‘평화적 삶 살기’가 요청된다. 평화적 삶 살기는 내적 평화와 그로 인한 외적 사물과 인간 및 우주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평화로 나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핵확산 및 실험 반대, 갈등해소 능력 및 다문화적 접근 및 환경의 중요성 강조, 보다 엄격한 교육과 단속 그리고 문제의 근원으로서 평화를 위한 우리의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등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시점에 그러면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과연 이룩될 수 있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물음이 요청된다.

몬테소리(M. Montessori)는 어린이는 세계평화의 희망이요, 우리는 그들이 최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계발시켜야 할 것과 그들에게서 인류의 ‘영적배아(spiritual embryo)’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를 영적 존재로 보았으며, 우주 만물에는 생태학적으로 연계된 통일성이 있는데, 그는 이를 ‘우주교육(cosmic education)’이라 불렀다. 이는 오늘날 홀리스틱 교육(holistic education) 또는 평화교육(peace education)과 유사한 의미의 교육이다.

홀리스틱 교육은 우주 만물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인식하고 촉진하며, 모든 존재의 심연과 그 핵심에는 어떤 근원적 힘으로서의 신성, 사랑 그리고 평화가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다. 평화교육에 대한 홀리스틱 교육의 접근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평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외부의 모든 존재와 우주 만물과의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⁴⁾.

평화교육은 무기 감축, 갈등해결, 환경의 중요성 자각, 문화교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의 내적 본질에 대한 통찰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세계평화에 이를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남을 돕고자하는 자비로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이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3) Nicklas, Hans & Ostermann, Anne, “Friedenserziehung.” Enzyklöpadie Erziehungswissenschaft. Bd. 3. Stuttgart: Ernst Klett. 1986), p.439.

4) 송민영, 『홀리스틱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6), 61-67쪽.

이러한 내적 평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적인 자기 관찰과 구별 및 정화의 과정이요, 내적 교사로써 우리의 외부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평화교육, 가슴의 교육(education of the heart)이 되어야 한다.

하츠혼(E. Hartshorn)은 “우리의 교육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의 내적 존재를 자각하고 모든 그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적 및 외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⁵⁾고 함으로써 내적 존재를 일깨우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츠혼이 주장하는 내적 교육은 아동, 학생이 자신의 몸과 마음, 감정과 영성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그들의 외적 환경 즉, 적합한 환경, 체험, 탐구, 발견, 이해와 숙달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내적 존재 즉, 자기 안에 있는 내적 자아를 탐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외부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평화교육의 기초가 다져지는 곳은 일차적 교육기관인 가정, 삶의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다양한 교과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전인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곳인 학교, 정당, 교회, NGO 등 시민운동단체, 특히 언론을 통해 평화교육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무감각을 일깨우는 장소로서의 사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평화교육의 이정표적인 인물로서의 킹(M. L. King)은 자유주의 철학을 통하여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인간의 실존 상황이 인간의 실존 본질에서 괴리되어 있다는 자각과 함께, 그 괴리를 이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임을 자각한다. 그는 어떤 시련과 모진 환경 속에서도 신이 주는 평안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경험을 따라 “바깥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inner peace)를 얻을 수 있다”(Washington, 1986:11)고 했는데, 이 ‘내적 평화’가 홀리스틱 교육의 주장과 만나는 지점이다.

킹의 ‘내적 평화’는 히브리어의 ‘샬롬(shalom)’과 같은 의미로서, 이는 포괄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로서, ‘완전성’, ‘총체성(wholeness)’, ‘온전함’, ‘안전함’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는 건강, 질서, 온전함, 정의, 조화, 안정, 구원, 복지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말로, 우리말의 ‘평화’, 독일어의 ‘Frieden’, 영어의 ‘peace’와 단순 일치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샬롬의 일차적인 의미는 어떤 유기체나 인간 공동체, 민족, 가족 등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안전하게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샬롬(shalom)’의 평화사상의 기저에 한결같이 흐르는 핵심사상은 ‘사랑(agape)’이다. 그는 기독교의 사랑이 억압받는 이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위력 있는 투쟁의 무기임을 깨닫고, 자신의 인권운동을 전개한다.

5) Hartshorn, E., Educating the Whole Child, (Dmen 7. 1987), no. 2. p.85.

이러한 평화 교육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 내부에 대한 성찰과, 사람과 사물, 온 우주의 연계와 균형, 포괄 그리고 전일성(wholeness)을 강조하는 홀리스틱 평화교육론의 평화교육으로서의 요소를 분석해본다.

III. 홀리스틱 교육의 특징과 평화교육 요소

포스트모던 시대에 모더니즘의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한 홀리스틱 교육은 인간 내외적 실재의 전일성(wholeness)과 관련된 개념이다.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스머츠는 홀리즘⁶⁾(holism, 전일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종래의 과학과 교육이 부분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라고 주장을 하였다(Smuts, 1926/1961: 5).

홀리즘은 생명의 전체적인 조화의 상태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는 서구의학의 요소주의적이고 환부 치료적 접근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마음과 몸의 유기적 관계가 생명의 전일성과 관련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 영역에도 도입되어 근대 교육의 대안으로서의 교육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홀리즘은 기존의 세계관과 교육관을 망라하는 접근이며, 전문적이고, 분석적이며, 환원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이며, 실증주의적인 사고로 이루어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서구 전통 과학의 근본적인 한계와 맹점을 지적하는 홀리즘과 함께 세계를 아주 많은 관계로 이루어지지만 결코 낱날로 떼어놓을 수 없는 움살스런 전일(wholeness)로 보는 사상체계인 시스템적 시각을 말한다(김재희, 1994:124-125). 시스템적 시각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생태학적(ecological) 시각, 맥락적(contextual) 시각(Clark, 1990:50), 영성적(spiritual) 시각(Miller, Clark(ed.), 1993a:229), 환경적(enviromental) 시각(Clark, 1990:38), 시스템적 시각(systemic)(Clark, 1997:25), 유기체적(organic) 시각(Gang, 1990:83), 진화적(evolutionary) 시각, 통합적(integrative) 시각이 있다. 이러한 용어의 등장은 생태학적 각성(ecological awakening)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⁷⁾.

홀리스틱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관계의 의미를 자각하고 각성하게 하는 ‘관계성’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서, 논리적 사고와 직관과의 연계, 마음과 몸과의 연계, 지식의 다양한 영역의 연계, 개인과 공동체와의 연계, 자아(self)와 자기(Self)와의 연계를 추구한다. 여기서 평화교육 논의의 핵심인 개인 내적 변화와 그로 인한 외적 환경과의 연계를 통한 진정한 평화에 대한 접근이 강조된다. 개인 내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외적 환경만의 논의로는 결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6) 홀리즘은 ‘전체’를 뜻하는 그리스어의 홀로스(holos)를 어원으로 하며, 이의 파생적 의미로는 전체·완전체·통일체(whole), 건강(health), 치유(healing), 신성한(holy) 등이 있다.

7) 한명희·고진호, 『교육의 철학적 이해』(서울: 문음사, 2005), 457쪽.

홀리스틱 교육은 어느 하나의 기술(technique)이나 또는 교육과정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아동을 기르는 일에 있어서의 후기산업사회의 세계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 교육과정 정류가 아니며, 교수에 있어서의 단순한 아동중심의 접근 같은 것도 아니다. 홀리스틱 교육은 환원주의적 세계관이 갈라놓은-인간 경험에 있어서의 사람과 사람, 개인과 공동체, 인간과 자연, 물질과 영혼과의 연계-복잡하고도 포착하기 어려운 연관들(connections)을 존중하는 노력이다. 느낌과 감성도 교육에 대한 홀리스틱 접근 방법에서는 지식과 개념 이상으로 학습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세계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하나가 되어가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이 도저히 선형적이고 인과론적으로 접근해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시점에 이른 오늘날, 생태학적 시각과 아울러 위에서 열거한 시각으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또한 인간관과 교육관에도 근본적인 변용(transformation, '전환'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이 요청되고 있다. 즉 인간의 전일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의 전일성, 교육의 전일성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음에 대한 깊은 자각이다.

오르(D. Orr)는 교육에 대한 재음미로서 6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모든 교육은 환경교육이어야 한다(all education is environmental)"⁸⁾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우주 그 자체인 궁극적인 참조점에 모든 것을 연관시켜야 하며 실제로 그 이하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 내적 본질이 전체성(wholeness)이고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오살스럽게 연계된 홀리스틱적인 것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교육과정은 전일성(wholeness)에 맞는 접근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방식인 지육 편중의 전달 위주의 교육방법은 교육내용의 내면화에 이르지 못하는 본질적인 약점이 있다. 이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중심을 강조하고, 나와 너, 나와 그것, 나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개체를 소외시킨다. 한 인간의 교육은 개인 내적 작용임과 아울러 허친슨(D. Hutchinson)의 말처럼 "아이 하나 기르는 데 온 우주가 필요하다"(Hutchinson, 1998: xiv)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전체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식이 온 우주 차원까지 확대된 인간이야말로 이 파편화된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인간인 것이다.

미래의 대안적 패러다임인 홀리스틱 교육이 기르고자하는 인간은 전문화, 분업화, 조직화 속에 매몰된 인간이 아니라, 창의성과 개성이 있으면서 스스로 일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도덕성, 감수성이 풍부한 '전인(whole person)'이다.

전인의 문제는 그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인간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에 직면하여 오늘날 학교교육은 환경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환경교육은 여타의 다른 분과목(separate disciplinary)처럼 나누어진 것이 아닌 모든 학문과 연계되어 홀리스틱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에서 홀리스틱적이라는 말과

8) D. Orr,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Washington, D. C.: Island Press. 1994), p.133.

유사하게 사용되는 말은 통합교육과정일 것이다. 물론 다학문적·간학문적·탈학문적 접근이라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통합교육과정은 이 세 가지 관점 모두를 포함하는 입장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생태학적, 맥락적, 시스템적, 환경적, 영성적이라는 표현은 인간을 둘러싼 인간과 비인간(human/nonhuman)의 전일성과 관계성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환경교육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이다.

생태계의 위기, 전쟁, 마약, 경쟁, 이기심이 원인이 된 세계의 갈등 현실 속에서 “교육의 위기와 생태계의 위기는 같은 데 있다”는 주장은 교육의 녹색화(greening)에 대한 요청이다. ‘교육변환을 위한 세계동맹’(GATE; Global Alliance for Transforming Education, 1991)이 선언한 ‘홀리스틱 교육 비전(EDUCATION 2000/A Holistic Perspectives)’⁹⁾은 홀리스틱 교육 내용과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평화교육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언급된 논의와 ‘홀리스틱 비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인간성의 최우선’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시해야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키워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 개개인의 존중’으로 학생들은 그 누구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원 일률적인 시험과 성적 평가방식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며, 지금까지 축적된 학습 형태, 복합적 이해, 학습 심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폭넓게 활용하여야 한다. 영재아, 학습장애아, 문제아에 대한 그간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셋째, ‘경험적 학습의 중시’가 필요하다. 교육은 경험의 소산으로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람에 차있는지 그것들과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세계에서 체득한 것들을 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되어 교육과정의 전일성(wholeness)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홀리스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나 교육정책도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교사 자신의 내면적인 성장과 창조적인 인식을 촉진할 새로운 교사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여섯째, ‘선택의 자유’가 필요하다. 삶은 선택의 연속으로 배움의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선택할 가치가 있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일곱째, ‘참여 민주주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참된 민주주의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참된 의미에서 정치 및 교육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9) Flake, C. L.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Holistic Education: Principles, Perspectives and Practices, A Book of Readings Based on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3), pp.240-247.

여덟째, ‘지구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들은 모두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지구시민이다. 따라서 지구시대의 교육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든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참된 인간적인 존재 방식을 젊은이들과 함께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구시민교육의 출발점은 생태학적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생활과 문화는 자연과 깊이 관계되어 있으며 자연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아홉째, ‘공생을 위한 생태학적 지구생명권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원래 모든 형태의 생명 중에 흐르고 있는 ‘생명’에 대한 깊은 외경의 염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인간은 지구생명권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교육을 기원한다. 지구의 모든 존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 개인의 행복과 지구 전체의 행복이 깊은 곳에 일치한다는 것, 인간 하나하나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의 넓이와 깊이의 자각을 촉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열번째, ‘영성과 교육’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며, 개성을 천부의 재능이나 능력, 직관이나 지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교육은 ‘생명’ 의식이 건강하게 길러지는 것이 되어야 하며, 결코 냉혹한 점수평가나 경쟁으로 난폭하게 상처 입혀서는 안된다.

홀리스틱 교육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통해 평화교육의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인간 내·외적 관계의 균형, 포괄, 연계를 추구하는 접근으로서, 홀리스틱 평화교육 또한 인간 내·외적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평화의 개념은 개인의 행복과 의식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핵심적 입장이다.

둘째,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개개인의 지성, 정서, 사회, 신체, 예술, 창의, 영혼의 잠재성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또한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개인·집단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오늘날 지구촌 사회의 일반적인 평화교육 비전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셋째,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이해와 의미에 대한 탐구이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목적은 모종의 새로운 맥락 속에서 뭔가를 알려고 할 때마다 학습할 수 있는 건전하고, 전인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육성하는 데 있다. 학생들에게 지구의 홀리스틱 관점, 지구상의 삶, 세계공동체의 등장을 소개함으로써, 홀리스틱적 전략은 학생들로 하여금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형성하는 다양한 맥락을 인지하고 이해하게 할 수 있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홀리스틱 관점, 지구상의 삶, 세계 공동체의 개념과 같이 자신과 인류의 삶을 조망하는 큰 그림(big picture)으로서의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

넷째,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각 학생들이, 지적, 창의적, 시스템적 사고에 대해 타고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모더니즘교육에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선형적, 계열적 과정에 역점을 두는 기계론적 환원주의의 패러다임 속에서 심각한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학생의 타고난 잠재가능성을 강조하고, 유연하고, 카오스적인 질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다섯째,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모든 지식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사실(facts)’은 공유된 관점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과거에 각 학문을 분리해 놓은 간극을 이어주는 학습의 전이를 강조한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그들의 삶의 문화, 도덕·정치적 맥락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도록 조장한다.

여섯째,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영적 지식(어느 종파를 강조하거나 옳다고 지지하지 않는)을 가치롭게 여긴다. 영성(spirituality)은 모든 삶과 연계된 상태이며, 통일 속에 다양성을 존중한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존재, 소속, 배려의 경험이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감수성, 동정, 기쁨, 희망을 나타낸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삶 내부와 외부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경이감, 우주의 신비에 대한 경외, 삶의 목적의식이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인간 영혼의 지고한 열망을 향한 움직임이다. 따라서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어느 특정한 기술이나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 목적을 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whole system)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다.

일곱째,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이러한 인간 내적, 외적으로 연계에 의한 균형과 배제가 아닌 포괄을 통한 조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추상적 논의가 아닌 GATE가 주장한 ‘참여민주주의의 강조’를 통해 인간 삶의 문제 즉, 인간 영혼을 황폐케 하고 소외시키는 문제 즉, 환경문제, 인종차별문제, 전쟁의 문제, 정의의 문제 등 모든 문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연계를 통한 자신과 세계, 우주적 차원까지의 자기 변용의 과정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은 공동체적 운명에 대한 인식과 단순히 평화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 즉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

IV.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실천 모델

마틴 루터 킹과 간디 등 평화교육의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평화교육 사상은 평화교육의 시작이 인간이고 그 끝도 인간임을 말하고 있다. 아래의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내용은 여성학자인 맥팔랜드(S. McFarland)의 모델¹⁰⁾을 참조하여 평화교육의 문제의 근본을 인간에 두고, 홀리스틱 교육의 ‘연계성’에 기초하여 내적 평화와 그와 연계된 외적 평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델이다. 다시 말해,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기본 인식인 개인의 변화와 자각을 통한 세계평화 만들기를 위한 평화교육모델이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을 위한 예비단계의 ‘자아 준비’는 우선 학생들을 이끌 교사의 자아를 위한 준비이다. 또한 예비단계로서 학교에서의 교육 관련자인 ‘직원의 준비’ 그리고 교육과

10) S. McFarland, "Introduction." In R. Miller (ed.), In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stic Education Review, (Brandon, V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1), pp.6-8.

관련된 ‘적합한 교육환경의 준비’ 그리고 ‘학생의 준비’를 통해 홀리스틱 평화교육을 구성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전인으로서의 인간의 몸과 마음, 영성을 통한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접근, 셋째 단계는 신뢰, 개방, 자각, 상호의존을 통한 화합과 조화를 추구하고, 세 번째 단계는 문화의 자각으로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면서, 온 인류는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예비단계

1) 자아 준비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위한 ‘영혼의 정화자’요 ‘촉진자’요 ‘정원사’로서의 역할모델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의 내적 존재를 살피고, ‘영혼의 정화자’가 되는데 방해요소를 파악하고, 내·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예민한 양심을 일깨우며, 직관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발적이 됨으로 평화가 발현된다.

교사는 아래의 내용을 학생과 리듬에 맞추어 소리 내어 부드럽게 외친다. 제목은 “한마음으로 수업을 시작 합시다”로 하고, 수업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전인으로서의 학습자에 대한 접근이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이 교실 안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이 학교 안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이 이웃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이 도시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이 지구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이 행성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합니다.

(1) 호흡 인식

호흡과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고른 호흡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숫자를 세면서 마음을 집중시킨다.

(2) 이완

고른 호흡과 함께 정신과 근육의 이완활동을 통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여 내적 평화를 도모한다.

(3) 명상과 침묵

시간을 고정적으로 내어 명상과 침묵에 잠겨 내적 치유와 힘을 얻는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 감정, 영성의 내적 활동을 의식한다. 자기 내면이 안정되고 내면을 인식하면 할수록 개인의 내적 평화는 학생들의 내적 평화를 이끌고, 이의 실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기 수용

자기를 인정하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반성하고 배운다. 자기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시작이다.

(5) 어린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자기 발견을 위한 교사의 삶의 여정 속에 아동 학생을 섬기는 도구로서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활용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

(6) 학생이 된다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교사와 학생은 상호 나눔과 학습을 이루는 공동체이다. 역할모델로서의 교사의 인격은 그의 말보다 호소력이 있다.

2) 직원의 준비

학교와 교실에서의 교육 관련자들의 행동도 역할 모델이 된다. 직원에게 감사와 인정을 하고,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성장과 계발을 도울수록, 그들도 더 자신 있게 그들의 자아를 발현한다.

3) 적합한 환경을 준비

(1) 학생의 눈높이 맞추기

교육환경을 학생의 눈높이를 맞춘다. 교실 책상과 의자 및 물품의 배치, 안정된 구도, 자료나 학생게시판 등이 단순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배치됐는지를 고려한다.

(2) 매력적인 재료 제공

학생을 위한 자료는 좋은 품질과 매력적이어야 한다. 유리나 나무 재질은 아이들의 미적 감각과 유사해서 유용하다.

(3) 구체적인 상징물 활용

평화의 상징으로서 교실에 하얀 비둘기, 유엔본부 앞에 있는 낫과 무기를 농기구나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놓은 상징물, 평화의 초를 켜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선반에 올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은 이에 의미를 부여한다.

(4) 감각적 인상 활용

사용한 색깔들의 느낌은 어떤지, 교실의 재질, 냄새, 소리와 음향의 울림 등을 학생 입장에서 접근하고, 교실환경을 사랑, 존중, 평화의 느낌을 반영하여 내적 평화의 발현을 촉진시킨다. 이런 지지적인 환경은 학생의 자발성을 촉진시키고, 많은 준비가 있을수록 더 많은 배려, 사고, 사랑에 이르게 할 수 있다.

4) 학생의 준비

(1) 학생 내적 평화에 초점을 맞춘다

평화의 촛불을 켜서 자기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의 촛불’을 켜게 한다. 교실에 ‘평화의 장소(peace corner)’를 지정하고, 그곳에 학생의 마음을 담은 촛불을 켜서 놓고, 마음이 울적하거나 내적 평화를 촉진시키고 싶을 때 가서 바라보고 느낀다.

(2) 학생이 학교에 있는 이유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이 학교에 있는 것은 사랑의 빛과 평화를 다른 이와 나누고, 그를 둘러싼 모든 것과 자신이 연계되어 있으며 그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며, 그것이 곧 행복이며, 자신의 행복이 곧 타인의 행복과 연계되어 있음을 입을 깨닫게 한다.

(3) 평화를 위한 규칙을 세운다.

다른 학생의 평화를 존중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운다. 다른 이를 배려해 집중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한다.

(4) 협력하고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학생이 서로 협력하고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5) 교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존중한다.

교실에서 동물, 식물, 각종 자료에 대한 아끼는 마음을 개발하도록 한다. 자비와 예의에 대한 학습은 이러한 각성을 촉진시킨다.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6)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로 출발하기 전이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바로 펴고,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내적 평화를 느껴보고, 자신의 이름이 속삭여지는 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활동을 매일 행하면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중하는 강도를 높여준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면 학습자는 보다 수용적이 되

고 평안함을 느낀다.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 그들의 발전하려고 하는 마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 내부의 빛을 밖으로 비추고자 하는 용기를 갖게 된다.

2. 평화: 개인적 자각, 집중

예비 단계를 거쳐 학습자는 자신들의 몸, 마음, 감정, 영성이 통합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활동을 거친다.

1) 몸

학생은 신체의 이름을 외우고, 위, 소화계통, 폐 및 호흡기계통, 심장 및 순환기계통의 내부 장기들을 익힌다. 각 장기들이 전체적인 신진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각각을 어떻게 돌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지를 익힌다. 음식이 어떻게 몸과 성격에 영향을 주는지, 폐의 호흡이 두뇌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장에 대해서는 운동과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의 이해를 위해 장기의 작용을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의식적이며 의도적으로 자신을 돌보게 된다. 신체골격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움직이는 데 뼈와 관절, 척추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시각화한다. 척추는 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척수의 역할과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안다. 근육의 움직임을 시각화하고 스트레칭과 에어로빅의 중요성을 안다.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서 해주는 것은 몸의 이해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몸의 다양한 측면의 중요성과 상호작용을 의식하게 됨으로서, 자신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의식적인 돌봄을 통해 잘 인식하게 되고 사용하게 된다.

2) 마음

마음의 기능과 능력에 대해 창의적이고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음의 구조(frame of mind)를 알고,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그 학생에게 맞는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감각이 마음과 의식에 끼치는 영향을 알도록 한다. 생각이 품성(character)이 되는 과정까지의 과정을 알고, 사고를 조절하여 감정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감정은 우리 마음의 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학생으로 하여금 감정의 작용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 무지개, 비둘기, 태양과 같은 평화의 상징을 시각화해서 창의적으로 글과 그림 및 활동으로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전뇌학습을 활용한다. 학습자가 매일 마음의 침묵을 경험하도록 한다. 그들은 호흡의 조절을 통해 마음의 사고를 관찰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서 마음의 보다 깊은 영역인 직관과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영성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평화를 가진 사람이 되어 그것을 삶의 모든 면에 발현해서

타고난 가능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민감하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평화에 대한 자각 속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샘솟고, 더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며,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지고, 보다 스스로없이 사랑이 표현된다. 아이들은 내적 교사에 더 귀 기울이고, 삶의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자유롭게 내적 평화를 표현하며 소통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보호’, ‘나눔’, ‘에너지 절약’, ‘배려’에 관한 독서보고와 글쓰기, 연극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한다.

각종 기념일이나 의식을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는다. 학교나 학급단위로 ‘평화의 날’을 선포하고 평화축제를 열어 평화의 비전을 표현하고, 평화의 노래, 시, 이야기 등을 나눈다.

3. 화합과 조화

평화와 조화는 전 우주적 본질이다. 한 개인의 내적 평화는 다른 이의 내적 평화에 이르는 통로이다. 만일 자신과 다른 이의 내적 평화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이러한 관계는 조화를 이룬다. 반대로 자신과 타인의 내적 평화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너무도 자주 피상적이고, 이기적이며 개인적 욕망으로 관계가 깨진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를 통해 다른 이의 내적 평화를 존중하고 안하느니라를 통해 조화와 부조화의 예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이는 동물과 식물, 사물을 포함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내적 평화를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외적인 ‘나와 너’의 관계에 더 이르게 된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잭 깁은 ‘TORI 모델’(T(rust), O(penness), R(ealization), I(nterdependence))을 개발했다. 그가 이름한 TORI 모델의 내용은 “한 사람이 두려움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면 보다 편안함을 느끼고 개방적이 되며, 개방적이 될 때, 보다 완전하게 자신의 참된 내적 본성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고, 자아와 타인의 내적 본성에 이르게 되면 지속적인 상호의존 또는 그러한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나선형적으로 반복하는 과정 속에 더 깊고 깊은 관계에 이르고 마침내 ‘참 만남(genuine meeting)’(Gibb: 1972: 1-12)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1) 신뢰

불신은 공포의 반대개념이며, 평화의 가장 큰 적이다. 신뢰는 모든 생명과의 연합의 기회를 활용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의 태도이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 개인이 타인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는 신뢰를 통해서인데, 이를 통해 내적평화와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육식의 문제와 군산복합체경제의 문제, 태양열과 석유의 소비구조, 정치 지형 예가 사용될 수 있다.

2) 개방

타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림과 소통으로 가능하다. 교사는 진정성(authenticity)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자신을 기꺼이 내어 학생들과 진실하고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나누어야 한다. 인생의 굴곡을 나타내는 문학작품과 시, 그림을 이용해 개방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3) 자각

삶의 절정경험에 이른(peak experience) 자아 실현인들이 내적평화에 이르고 외부와의 조화적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실물교훈으로 느끼고, 중요성을 깨닫는다. 행복한 시간(Happy Hour), 칭찬 시간, 내적 자기 들여다보기 시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평화로운 본성을 들여다 보고, 고요함이 평화에 이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4) 상호의존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타인에게 더 가까이 가게하고, 협력하여 상호의존적이 되도록 한다. ‘나무’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 학교 행사 등 가능한 체험을 통해 공동체로서 상호의존성과 공감능력을 기른다.

상호의존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맺고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 감각 또는 상호의존성의 감각으로부터 우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연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우리의 신뢰 수준은 조금 더 높아지며, 우리는 개방성(openness), 자각(realization),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과정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목적인 연합(unity)과 하나됨(oneness)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의존과 신뢰를 형성하는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패스워드게임’을 활용하기도 좋은 방법이다.

4. 문화의 자각

학생의 내·외적 평화의 결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세계 평화로 이어져야만 한다. 학생으로 하여금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고, 타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준비시킨다. 다른 문화 사람의 이해를 위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연구로서 육체적 필요로서 음식, 의복, 거주처, 도구, 교통, 건강, 의사소통,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으로서 문화, 종교, 의식 등을 연구한다. 각 문화의 의식과 행사를 참여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느끼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것 지구인으로서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외계에서 지구를 찍은 푸른 지구사진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경도 없고 철조망이 없는 지구의 모습은 강력한 지구시민으로서의 비전을 심어 줄 것이다. F. S. Musgrave는 허블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 유영을 한 경험을 다음과 같

이 기술했다. “전체적이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 지구의 모습은 우주 프로그램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프로그램과 ‘지구시민(planetary citizen)’으로서의 새로운 자신에 대한 감각.....여러분은 한 번에 나무 하나만 보는 것과는 반대되는 전체 숲을 바라보는 실제로 신비적인 큰 그림(big picture)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재편하기에 충분하고 강력한 유일한 비전은 현재의 학생 세대가 지구마을에서 평화롭게 협력하며 살아가는 ‘지구시민’이다. 지구협력에 대한 비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과의 깊은 관련성 때문에 전체 교육시스템을 변용시킬 수 있다. 지구적 협력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흥미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 내부 깊은 곳에 자리한 희망을 자극한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며 지역적으로 행동하기(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V.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관계적 존재’인 인간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와 외부세계와의 관계의 균형, 조화, 연계, 배제가 아닌 포괄을 기본입장으로 한다. 그러한 관계의 질이 그의 삶의 방식이요, 삶의 질이요, 인격의 질이기 때문이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차원적이고 전인적 존재이다. 그 관계는 곧 삶의 의미규정이기 때문에 홀리스틱 평화교육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관계 단절의 시대인 오늘날,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상생의 참여가 강조되는 홀리스틱 평화교육이 오늘날 평화교육 담론에 의미 있는 접근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전망과 과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오늘날 비평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갈등해결에 대한 기술의 부족이나 능력의 부재에서 온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생각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 하나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갈등을 건설적이며 상생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과 능력이 부족할 때 평화는 깨지기 쉽다.

둘째, 관계성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계성의 부족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무관심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상대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상호 친숙함과 신뢰성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셋째, 힘의 안정성과 균형성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힘이 필요하며 이러한 힘은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와 균형을 요구한다고 본다.

넷째, 욕망과 부정적 정서를 건설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돌리지 못할 때 반 평화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쉽다.

다섯째,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이 너무 자주 강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폭력에 노출

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 불감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교육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확산되려면 평화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오늘날 우리교육에서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대사회적 배경으로서 반 평화적 요소와 인간 발달적 측면에서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시대, 공존공영보다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 충족이 우선되는 시대, 실패자를 양산해 내는 지나친 경쟁사회 분위기 등에서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교육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간발달의 초기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노감정과 공격적 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도가 평화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평화교육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평화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평화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신은수(2002)는 평화적 인간을 다음 10가지 덕목을 갖춘 인간으로 보고 있다. 즉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동정심을 갖고 남을 해치지 않는 인간, 내적 평화를 발견하는 인간,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우는 인간,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간, 진실된 자기가 되는 인간, 비판적 사고가 발달된 인간,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인간, 사회의 평화를 구축하는 인간, 세계 및 지구를 보호하는 인간이 그것이다¹¹⁾.

셋째, 평화의 문화를 지향하는 관용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너그럽고 관대함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해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가치나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완고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타인을 멸시하거나 타인과의 부드러운 관계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평화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개념과 영역이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²⁾

1) 개인적인 측면

- 개인적 내면상태의 조절 능력
-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2) 관계의 측면

- 다른 사람과의 평화적 관계(타인존중, 협동, 공존, 배려의 가치)

11) 신은수 외 2, 『유치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활동의 실제』 (서울: 학지사), 25쪽.

12) 홍순정, 『에피스테메』 (서울: 에피스테메, 2005), 125-127쪽.

-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

3) 평화문화 형성의 측면

- 관용의 교육과 문화(다양성과 국제 이해)
- 비폭력적 환경의 조성(가정, 유아교육 기관, 사회, 세계, 자연)

4) 평화실천의 측면

- 평화 관련 정보, 이해, 의식, 실천의 문제
-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우주적 차원에서의 실천

홀리스틱 평화교육의 실천에 있어서의 방법은 교육현실에 맞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8차 교육과정 개정에는 평화교육의 내용과 실천에 대한 접근이 지금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 본다. 이에 홀리스틱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적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평화교육에서 인류 평화의 중요성과 반 폭력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가치분석과 가치명료화 과정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해결에 대해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교육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사회와의 조화롭고 호혜적인 관계형성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 영성의 세계와도 관계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계형성이 소홀하거나 실패할 때 인간의 고립을 가져와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포함하여 국가간 문화교류와 문화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과 반 편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평화를 지향하는 성향의 기초는 이해와 지식과 함께 이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남과 협동하고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실천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영적 행동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자녀의 자기 존중감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평화교육은 다양한 지식 영역과 방법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홀리스틱 교육은 어떤 특정 이론이 아니라 과학주의·객관주의적 시각을 통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지식중심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의 전환이요, 인간의 삶과 우주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 대한 교육이다. 또한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연관된 것들과의 연계

(connection)에 대한 의식 속에서 인간애, 인류애 그리고 우주공동체를 향한 의식의 확장이다. 인간의 내적 본질과 외적 연계의 연결망의 추구를 통한 평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있어서, 홀리스틱 교육의 시각에서의 평화교육은 지금까지의 평화교육의 시각을 비판하고, 진정한 평화교육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패러다임이라 할 것이다.

IV. 결 론

인류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버린 현대문명의 주요 가치체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그 가치에 기초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때 그 새로운 대안 가치의 핵심 성격은 ‘관계론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포함하는 가치가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평화’이다.

평화론과 평화교육의 한 가운데에는 ‘인간’이 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어선은 인간의 마음속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네스코 헌장에서 우리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할 수 있다. 사실상 평화를 깨뜨리는 것도 인간이요, 평화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평화를 유지하고, 없는 평화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교육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인간의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희망이 자라나는 학생에게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홀리스틱 평화교육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것은 학생의 내적 및 외적 평화를 기르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다.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의 종말, 이념경쟁의 승리 등 외형적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자기를 사랑과 배려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인간의 삶의 단계에서 상호작용하고, 우리가 평화의 참된 근원과 이러한 근원에 의식적으로 도달하려고 노력할 때 참된 평화가 이르러 올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원. 『아래로부터의 한일 평화교육』. 서울: 커뮤니티. 2005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 고병헌. 「평화문제와 국제교육」. 『21세기를 위한 국제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4
- 고병헌. 『평화교육사상』. 교육의 역사와 철학 시리즈 15. 서울: 학지사. 2006
- 고병헌.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정환. 「평화교육학의 이론과 과제」. 『현대의 비판적 교육이론』. 서울: 박영사. 1988
- 맹용길. 『전쟁과 평화』. 서울: 쿤란출판사. 1994
- 민정숙, 정영수. 「한국사회의 갈등과 평화교육의 방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 한독교육학회. 2006
- 박보영.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의 평화교육 실천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세대 학교 대학원』. 1999
- 박영만 외 9. 『홀리스틱 교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엘리트. 2002
- 송민영. 『홀리스틱 교육사상』. 교육의 역사와 철학 시리즈 20. 서울: 학지사. 2006.
- 서동욱.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평화,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 내일을 여는책. 1995
- 신은수 외 2. 『유치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활동의 실제』. 서울: 학지사
- 신화식. 『몬테소리 이론의 탐구』. 유아교육학시리즈. 서울: 학지사. 2006
- 오인택.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의 평화문제」. 『청소년 평화의식』. 서울: YWCA. 1986
- _____. 「평화교육의 개념과 우리교육의 과제」. 『우리교육』. 20호. 199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포럼』. 1999
- 윤웅진. 『기독교 평화교육론』.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 장원석 외 3인. 『평화교육의 이론과 현실』. 서울: 각. 2005
- 평화재단 제14차 전문가포럼. 『한국사상에서 찾는 평화와 통일』. -원효, 최제우, 함석헌 사상을 중심으로. 2007년 10월 4일
- 평화전문인터넷 신문 '평화만들기', 224호. 2006년 3월 22일
- 한명희 · 고진호. 『교육의 철학적 이해』. 서울: 문음사. 2005
- 한명희 외 8.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서울: 정민사. 1996
- 현 주.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 홍순정. 에피스테메. 서울: 에피스테메. 2005
- Brenzika, W. *Erzießig und Kùlturrevolutio-Die Padagögie der Neuen Linken*, (München: Ernst Reinhardt Verlag. 1974
- Capra, F. (1996).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1998). 김동광 역. 서울: 범양사출판부
- Doll, W. E. J. 교육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A Post-modern Perspective on Curriculum*). 김복영 역 (1997). 서울: 교육과학사. 1993
- Flake, C. L.,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Holistic Education: Principles, Perspectives and Practices, A Book of Readings Based on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3
- Gibb, J. R. "Meaning of the Small Group Experience," *New perspectives on Encounter Groups*, Lawrence N. Solomon and Betty Berzon, eds. San Francisco: Jossey-Bass, 1972
- Hartshorn, E., "Educating the Whole Child" *Dmen* 7, no. 2, 1987

- Jampolsky, G. G. (1970), *Love is Letting Go of Fear*(New York: Bantam, 1970)
- Maslow, A.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1971
- McFarland, S. "Holistic Peace Education". *Holistic Education Review*. Holistic Education Press, 1988
- Merton, T. 머튼의 평화론(Peace in the Post-Christian Era). 조효제 역 (2006). 서울: 분도출판사. Orbis books. 2004
- Miller, J. *Holistic Teacher*. OISE Press. 1993
- _____. *The Holistic Curriculum*. OISE Press. 1996
- Miller, R., "Introduction." In R. Miller (ed.). *In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stic Education Review*. Brandon. V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1
- Miller J., *What are Schools for?: Holistic education in American Culture*(3rd rev. ed.). Brandon. V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0 / 1997
- Nicklas, Hans & Ostermann, Anne, "Friedenserziehung". *Enzyklöpadie Erziehungswissenschaft*. Bd. 3. Stuttgart: Ernst Klett. 1986.
- Orr, D.,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Washington, D. C.: Island Press. 1994
- Standing, E. M., *Maria Montessori: Her Life and Work*(New York: Mentor/New American Library. 1957
- UNESCO.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xamples and Suggestions for Classroom Use*. Copenhagen: Universitets-Bogtrykkeri. 1959
- Washington, J. M. (Ed.). *A Testament of Hop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86

원고접수: 2007년 11월 15일 1차심사: 11월 18일 게재승인일: 12월 18일

연구자 소개: 명지원

① 전공: 교육학(교육철학) / 소속: 삼육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교육철학, 홀리스틱 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교육과정

③ 주요논저: 「전인교육의 위기와 진단」, 「교육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태학적 세계관」, 「홀리스틱 교육에 의한 통합교육과정 구성」, 「홀리스틱 교육 통합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모델 개발」

④ E-mail: jwmyung@syu.ac.kr

Abstract

Holistic Education as Peace Education

Myung, Ji-Won

Sahmyook University

The aim of study is to analyze the significances, ideals, goals and make an alternatives peace education from the viewpoints of holistic education, which is now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modernistic education.

Conventional education geared to modernism and an industrial-age culture is now in decline. Especially during the 20 century the culture had a pervasive influence on the ways of education by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trends of almost all modern nations.

Holistic education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solve these problems of modernistic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seeks to restore the wholeness of human being with an emphasis on spirituality and meaning.

The realms of peace education are not limited in military aspect. So the peace education is not only the tasks of school education, but also the important tasks of family and social education.

The meaning and the goals of peace education parallel those of holistic education. The basic idea of peace education is to awake students from ignorance of inner self and inner teacher, and develop the man's abilities to overcome the apathy of non-peaceful education as a war and the structural violences, and so that we can make a peace in the world.

Key words : holistic education, peace education, wholeness, alternative approach, meaning